전라감영 길에 상징조형물 만든다

웨딩거리 시작점에 5월까지 설치… 한옥마을 관광객들 동선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 기대

전주시는 천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구도심 100만평을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핵심공간인 전라감영으로 가는 길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

시는 복원·재창조 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 뒤편에 오는 5월까지 웨딩거리의 시작점을 알리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상징조형물이 설치되면 보행자 중심의 역사문화의 길로 조성된 풍남문~전라감영~풍패지관(객사)에 이르는 전라감영 테마거리의 볼거리가 늘어나고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동선이 풍남문과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 전라감영은 물론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보물 제308호인 풍남문과 복원·재창조 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 보물 제583호인 풍패지관을 잇고 있어 천년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도로를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걷기 좋은 거리로 바꿔나가고 있다.

국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을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까지 220m 구간과 전라감영에서 객사까지 280m 구간 등 총 500m 구간의 보행로 정비를 완료했다.

또 완산경찰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라감영 입구에 해당하는 완산경찰서 건물의 벽면 전체에 전라감영 복원도를 그려 넣었다. 이곳은 향후 전라감영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복원된 전라감영의 모습과 옛 모습을 비교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주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의 도시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주 원도심이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발돋음 하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며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구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짜맞춤 전통기술 전수교육' 결과물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4일부터

'짜맞춤'이라는 전통방식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제작된 초보 공예인들의 사방탁자가 6개월의 산고 끝에 세상에 작품으로 선보여진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해 6월부터 전통문화창조센터 시제품제작소를 통해 '짜맞춤 전통기술 전수교육'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물을 오는 24일부터 2주간 전당 3층 전시실에서 전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시는 짜맞춤 고급반과 창업반 교육생 20여명이 6개월 간 전수받은 전통 짜맞춤 기법을 통해 만든 작품을 일반에 전시하는 자리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와 대패, 끌, 그무개 등 전통의 도구를 이용해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가구로 소위 '인내의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으로 불려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인 사방탁자에는 우리 전통가구에서 잘 나타나는 제비촉과 연귀장부, 삼방 연귀, 주먹장 등 전통 방식의 다양한 결구법이 활용돼 목공예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회에는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 고(故) 조석진 명인이 생전 제작한 사방탁자를 제자인 권원덕 작가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투명 아크릴로 제작한 '짜맞춤 사방탁자 전개도'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전주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

시는 19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황인기 강사를 초청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교육과 동영상 시청,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기 강사는 "심정지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75% 이상의 소생률을 보이지만 5분 이상 지체되면 뇌손상, 뇌사발생 등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정지환자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습 마네킹을 이용해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이날 교육에 이어 매월 셋째주 금요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위기상황 시 초동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관심은 있었으나 배우지 못했던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도움이 됐다"며 "4분 안에 실시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 시민들이 위급할 때 응급조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연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초기 대응능력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 19일 본점 3층 PB센터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직원 급여 1%로 마련한 성금 1700여 만원 전달했다. 〈사진=전북은행 제공〉

완산경찰서·교통안전공단 간담회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교통안전 유관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대형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 및 향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간담회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합동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는 많은 사상자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앞으로도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로고라이트 등을 이용한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덕진경찰서, 개정 청탁금지법 교육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각 과, 계장, 지구대장 등 중간관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경찰관으로서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감사담당자가 개정된 배경과 주요내용, 그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후신 덕진서장은 "일위반사례가 없도록 중간관리자가 모범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형 온두레 공동체 예비학교 참가신청

24일까지… 예비학교 운영 거쳐 2018년도 공모사업 신청 접수할 계획

이웃과의 교류 단절로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올해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사람이 중심이고 주인공되는 '2018년도 전주형 온두레 공동체 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예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온두레 공동체 사업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체 사업으로 올해는 시작단계인 디딤단계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동체를 키우는 이음단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희망단계,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아파트공동체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입교식과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사업 구상에 대한 상담 등이다.

시는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온두레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접수에 들어간다.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60여개 공동체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모임, 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jsec.or.kr)에서 내려받은 예비학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jcsc@jhub.or.kr)로 접수하면 된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은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며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비학교에도 적극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공동체육성과(063-281-2498, 5028)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에서 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손모(62)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건설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원의 대금을 받아 놓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전에도 전국적으로 1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올해 첫 사례다"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013년 277억원(8534명), 2014년 417억원(1만2016명), 2015년 432억원(1만1356명), 2016년 437억원(1만1122명), 지난해 437억원(1만1241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이상민 기자